

월드컵 결산

<1> 공격축구 실종

“막고 보자”... 골가뭄 극심

지구촌을 초여름 그라운드의 열기로 뒤덮었던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개막전이 열린 뮌헨에서 피날레의 현장 베를린까지 12개 개최 도시에서 전 세계 팬들은 격전의 순간마다 환호성을 올렸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올해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독일월드컵의 특징과 명승부가 남긴 발자취, 각종 기록 등을 분석, 결산해 본다.

16강 후 수비축구 뚜렷...1골 경기 다섯차례 예선통과 강호들 ‘한골 잠그기’ 박진감 ‘뚝’

“골이 너무 적다. 골이 없으면 관중도 떠나게 마련이다”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준결승까지 62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고작 2.27골이 터졌다. 축구의 핵심은 골이다. 골이 없으면 관중도 떠난다”고 우려의 말을 남겼다. 블래터 회장의 지적대로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는 준결승까지 141골이 터졌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64경기에서 161골이 터져 평균 2.52골이 터진 것과 비교

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더구나 조별리그를 마치고 16강전부터 4강전까지 펼쳐진 총 14경기만 따진다면 평균 1.71골(총 24골)로 더욱 줄어든다. 4년 전 한일월드컵과 달리 16강 돌풍을 일으킨 가나 등을 제외하면 큰 이변 없이 세계 축구강호들이 그대로 조별리그를 통과해 ‘일진일퇴’를 거듭했다는 것이 골 가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별리그를 통과한 팀들이 결승 진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수비를 강화하는 전술을 앞세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했다. 16강전부터 4강전까지 총 14경기에서 득점없이 연장 승부를 거쳐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경기는 스위스-우크라이나전(16강전)과 잉글랜드-포르투갈전(8강전) 등 두차례다. 1골만 나온 것도 5경기나 될 정도로 16강 이후 골 가뭄이 심했다. 그나마 브라질이 가나를 16강전에서 3-0으로 꺾은 것과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를 8강전에서 3-0으로 물리친 것, 프랑스가 스페인과 8강전에서 3-1로 승리한 게 눈에 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프랑스와 4강전에서 경기 초반 그동안 활발히 사용했던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을 자제시키면서 프랑스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축구를 선보이기도 했다. 프랑스도 지네딘 지단이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키고 나자 의견상으로는 공격수들을 교체 투입했지만 ‘한 골 잠그기’에 나선 앙상 이 뚜렷했다. 블래터 회장은 일단 이번 독일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더욱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9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3, 4위전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데쿠(가운데)가 독일 수비에 막혀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포돌스키 ‘최우수 신인상’

‘전차군단’ 독일의 신예 공격수 루카스 포돌스키(21·FC 쾰른·사진)가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부터 신설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테크니컬스터디그룹(TSG)은 7일(이하 한국시간)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198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인 40명을 대상으로 활약을 평가한 결과 포돌스키에게 ‘질레트 베스트 영 플레이어’상을 수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TSG는 포돌스키가 미로슬라프 클로제(브레멘)와 더불어 전차군단의 공격을 이끌어 4강 진출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스웨덴과 16강전에서 펼친 플레이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옮겨 오시엔 TSG 위원장은 “포돌스키는 이번 대회에서 3골을 기록했을뿐 아니라 독일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냈다. 포돌스키는 클로제와 환상적인 호흡을 맞춰 강력한 투톱을 형성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이 올린 11득점 가운데 이들이 만들어낸 득점이 무려 8골이나 됐다”며 수상을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포돌스키는 포르투갈의 공격을 주도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1·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막판 경합을 벌였지만 객관적인 성적표에서 호날두를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돌스키는 준결승까지 6경기에 빠짐없이 출전해 4경기를 풀타임 소화하는 등 563분을 뛰었고 21개의 슈팅을 때려 이 가운데 3골을 네트에 꽂았다.



‘아름다운 퇴장’

9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3, 4위전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마친 독일의 골키퍼 올리버 칸(왼쪽)과 포르투갈의 미드필더 루이스 피구가 경기를 마친 뒤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리버 칸 “이젠 후배들에게 물려주세요” 루이스 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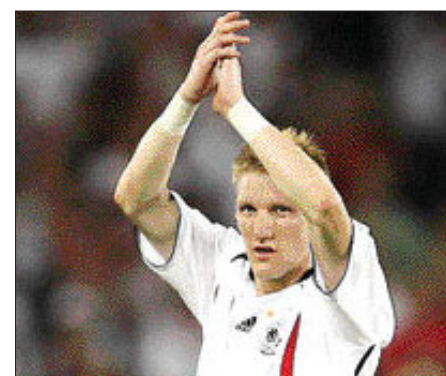
3~4위전 후 나란히 대표팀 은퇴 선언

자신 1990년대 포르투갈 축구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황금세대’의 대표주자 루이스 피구(34·인테르밀란)가 마침내 지난 15년간 입어왔던 포르투갈 대표팀의 자춧 유니폼을 완전히 반납했다. 피구는 9일 새벽 치러진 2006독일월드컵 3-4위전 독일전에서 1-3으로 패한 뒤 대표팀 은퇴를 공식선언했다. 지난 1989년과 1991년 포르투갈의 세계 청소년대회(U-20) 연속 우승을 이끌면서 ‘황금세대’로 부를던 피구는 1991년 10월 19살의 나이로 룩셈부르크와 A매치를 통

해 처음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에우제비오 이후 포르투갈 최고의 선수로 손꼽혀온 피구는 유로2004를 마친 뒤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고 소속팀(당시 레알 마드리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대표팀 감독의 설득으로 이번 독일월드컵을 대표팀 고별무대로 삼았다. 하지만 피구는 지난 15년 간 127경기

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이 독일 위해 뛰는 나의 마지막 경기였다”며 은퇴의 뜻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칸은 이번 대회에서는 동갑내기 엔스 레만(아스날)에게 주전 골키퍼 자리를 내준 채 단 한 경기에도 뛰지 못하다 이날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1995년 독일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칸은 이날까지 A매치 86경기를 뛰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늘이 독일 위해 뛰는 나의 마지막 경기였다”며 은퇴의 뜻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칸은 이번 대회에서는 동갑내기 엔스 레만(아스날)에게 주전 골키퍼 자리를 내준 채 단 한 경기에도 뛰지 못하다 이날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1995년 독일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칸은 이날까지 A매치 86경기를 뛰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독일 3위

슈바인슈타이거 2골
포르투갈에 3대1 승

‘전차군단’ 독일이 2006 독일월드컵축구 3위로 마무리지었다. 독일은 9일 오전 슈투트가르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대회 3-4위 결정전에서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22·바이에른 뮌헨·사진)의 두 골에 프티의 자책골을 묶어 누누 고메스가 한 골을 만회한 포르투갈에 3-1 완승을 거뒀다. 홈어드밴티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승 진출에 실패했던 독일은 그나마 3위 자리를 차지하며 어느 정도 체면을 살리게 됐다. 반면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40년만에 16강에 진출한 포르투갈은 당시 올렸던 월드컵 최고성적 3위와 타이틀을 노렸지만 골이 제때 터지지 않아 4위에 만족해야 했다. 독일은 미하엘 발라크와 팀 보로프스키 등 주전이 대거 빠졌는데도 미로슬라프 클로제와 루카스 포돌스키 투톱을 내세워 경기 시작부터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승부의 추가 독일 쪽으로 기울 것은 후반 11분. 상대 왼쪽 측면을 돌파한 슈바인슈타이거가 수비수 2명을 따돌린 뒤 페널티 지역 왼쪽 바깥에서 중거리슈팅을 날린 것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골 맛을 본 독일은 계속 상대를 몰아붙였고 후반16분 왼쪽을 돌파한 슈바인슈타이거가 올린 강한 땅볼 크로스를 포르투갈 미드필더 프티가 걷어낸다는 것이 자책골로 연결됐다. 독일은 이것으로 거의 승리를 예약했지만 슈바인슈타이거는 후반 33분에도 첫 골과 비슷하게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수비수를 따돌린 뒤 중거리포를 날렸고 불을 정확히 상대 골문 오른쪽 구석에 꽂아넣었다. 슈바인슈타이거는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포르투갈은 후반 막판 교체 들어온 백전노장 루이스 피구가 경기 종료 2분전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고메스가 헤딩슛으로 연결한 골을 집어넣어 연패를 면했다.